

2016년 서울시 9급 A책형 해설

제공 : 유두선 교수

1. ① 삶쟁이 -> 살쟁이, 떨어먹다 -> 털어먹다
② 세째 -> 셋째, 애답다 -> 애달프다
④ 광우리 -> 광주리, 강남콩 -> 강낭콩

정답 ③

2. ① ㉠으로는 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밀천을 까먹을 것과 그의 아내가 달아난 사실이 관찰사인 ‘나’를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황수건은 장사 밀천을 대준 것에 고마움을 포도로 표시하고 있다. ④ 그의 행위를 은근한 순정으로 여기고 있으니 호의적인 것이다.

정답 ①

3. ④ 가+아서=가서 ‘아’가 동음 생략됨

<오답풀이>

- ① 흥+ㄷ=ㅌ, 흥+지=ㅈ로 자음 축약
② 우+어라->위라 모음 축약
③ 흥+ㄱ=ㅋ, 즈+흥=ㅈ로 자음 축약

정답 ④

4. ② ‘하나나 둘쯤 되는 수’를 뜻하므로 수사 부정어와 호응하여 ‘조금’의 뜻일 때나 어떤 일이나 현상이 적은 수부터 서서히 시작됨을 나타낼 때는 명사. 예) 시험을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오답풀이

- ①, ③, ④는 단위;명사 앞에서 쓰이는 수관형사.

정답 ②

5. ② 비나리치다 -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다

정답 ②

6. ① 옐로우 -> 옐로 ② 알콜 -> 알코올, 써클->서클 ③ 도너츠 -> 도넛

정답 ④

7. ④ 단독세대원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 수 없음

<오답풀이>

- ① 신문보도 (1)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2)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신문보도 (2)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음
- ③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은 대등한 경우가 아니라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음

정답 ④

8. ① 자음 명칭은 특수하게 읽는다., ㄴ첨가와 비음과 현상이 일어난다.

<오답풀이>

- ② [똥른] ③ [넙쭈카다] ④ [흥만]

정답 ①

9. ① 책+ (꽃+ 이=파생) = 합성어

<오답풀이>

- ② 헛(접두사)+ 소리=파생어
- ③ 가리(어근)+ 개(접미사) = 파생어
- ④ 흔들리(어근) + 口(접미사) = 파생어

정답 ①

10. ① 중요(重要) ② 대중(大衆) ③ 중개사(仲介士)

정답 ④

11. ② 제시된 시는 구상의 ‘초토의 시’로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범선의 ‘오발탄’도 6.25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오답풀이>

- ① ‘객주’는 한말의 상인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변동을 그린 작품
- ③ ‘토지’는 구한말부터 광복까지 내용을 다룬 작품
- ④ 조선 ‘숙종’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정답 ②

12. ③ ㉠, ㉡은 동사를 사동화한 것이지만 ㉢, ㉣은 형용사를 사동화한 것이다. 동사만 사동화 된다는 말은 잘못이다.

① ㉠은 보조용언을 사용한 통사적 사동문이고 ㉡은 파생접사를 사용한 파생적 사동문이다.

② ㉠에서 ‘아이에게’는 부사어 ㉡에서 ‘마당을’은 목적어

④ ㉠은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취하는 세자리 서술어

㉡은 주어 목적어를 취하는 두자리 서술어

정답 ③

13. ①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주전자(酒煎子)

정답 ①

14. ③ ‘내가(S)+ 본(P)’은 명사인 ‘영화’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오답풀이>

① ‘밥’은 목적어

② 서술어가 없으니, 주어, 목적어, 성분의 ‘구’에 해당

④ ‘독지가였음’이 ‘음’이 붙었으니 명사절인데 조사 ‘이’를 볼 때 주어성분이다.

정답 ③

15. ③ 중도에 그만 둘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낼 때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의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뜻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登高自卑(登高自卑) -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오른다는 뜻으로 일을 순서대로 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②각자무치(角者無齒) -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가지 채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는 말.

④순망치한(唇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 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 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정답 ③

16. ㉠ 혈의 누(1906). 자유종(1910) -> ㉡ 무정(1917) -> ㉢창조(1919), 폐허(1920), 백조(1922) -> ㉣ 삼대(1931), 흙(1932), 태평천하(1938) -> ㉤ 인문평론(1939), 문장(1939)

정답 ③

17. ② 산의 그림자가 호수에 비치는 것은 ㉠-③의 뜻과 같다.

<오답풀이>

- ① ‘안이 비친다’는 ㉠-⑤의 뜻과 같다.
- ③ ‘결혼문제를 비쳤더니’는 ㉢-②의 뜻에 해당한다.
- ④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는 ㉡의 뜻에 해당한다.

정답 ②

18. ④ 순음 아래 ‘ㅇ’을 연서하면 순경음이 된다. ‘병, 뭉, 풍, 뽕’등 이다.

<오답풀이>

- ① ‘ㄱ’은 혀뿌리가 연구개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 ② ‘ㄹ’은 이체자이고 가획의 원리로 ‘ㄱ ㄷ ㅌ ㅊ ㅍ ㅈ ㅊ ㅎ’9개의 자음을 만들었다.
- ③ 초성(자음)에 17가 중성(모음) 11자로 모두 28자를 만들었고 중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하였다.

정답 ④

19. ④ ‘데’는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관형어 다음에 바르게 띄어썼다.

<오답풀이>

- ① ‘커녕’은 보조사로 보조사 ‘은’다음에 붙여쓴다.
- ② 뒤에 오는 ‘밖에’는 부정어 앞에서는 조사로 ‘소리’에 붙여 쓴다.
- ③ ‘만큼’은 관형어나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서 의존 명사로 쓰임으로 띄어 쓴다. ‘있을 만큼만’으로 띄어쓴다.

정답 ④

20. ② 맥수지탄 :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오답풀이>

- ④ 좌고우면(左顧右盼) : 앞뒤를 재고 망설임 ‘顧’는 돌아볼 고
- ① 온고지신(溫故知新) :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故’로 써야한다.
- ③ 식자우환(識字憂患) :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얻게 함 ‘字’로 써야한다.

정답 ②

<총평>

2016년 서울시 9급 문제 유형은 문법 13문항 소설, 국문학사 3문항, 쓰기 1문항, 한자 3문항이 출제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문법이 모든 영역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표준어, 음운변동, 고유어, 외래어, 발음, 품사, 합성어, 언어일반, 문장 성분, 어휘 훈민정음, 사동, 띄어쓰기에서 출제되어 문법을 원리따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곤혹스러웠을 것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오히려 쉽다고 느꼈을 것이다. 독해지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시험의 경향은 언제나 출제 교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정석이다.